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점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국가예산 국회 단계 증액도, 전방위 행보 이어가

김중훈 도 경제부지사, 국회 찾아 예결소위 위원 등에 전북 현안 반영 설득
김관영 도지사, 내일 국회 재방문 예정... 남은 기간 정치권과 공조 등 총력전

전북도가 도정 주요 분야별 핵심사업 예산 국회단계 증액을 위해 연일 전방위 총력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주 김관영 지사가 우원석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양당 원내대표, 주요 상임위원장 등 국회 핵심 인사를 대상으로 한 국회 방문 활동을 벌인 데 이어, 15일에는 김중훈 경제 부지사가 예산 확보전 전면에 나섰다.

지난달 27일 농해수위 예산심사를 시작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회 상임위 예산심사가 이번 주 대부분 마무리되고, 다음 주부터 사실상 내년도 예산 반영 여부를 관가름하는 국회 예결위원회 소위 심사가 시작됨에 따라 예산 심사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 예결위원회들과 기재부 핵심 인사 설득에 나선 것이다.

이날 국회를 방문한 김중훈 경제부지사는 먼저 예결소위 위원으로 전라북도 예산확보에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는 한병도 의원과 이용호 의원을 방문하여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현재까지의 상임위 예산심사 진행 상황과 향후 예결위 심사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각 분야별 핵심사업들이 정부예산에 담길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 가지고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지역 연고의원으로 예결위원인 이화영의원, 유동수의원, 예결소위 위원인 정접식의원, 배현진위원을 잇달아 만나 전북도 주요사업 예산변형 필요성을 적극 설득했다.

새만금·산업분야 주요 핵심사업으로 새만금산업단지 투자관심기업 수요 충족을 위해 시급한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 △새만금환경생태용지 2-1단계 조성 △군산2국가산업단지 폐수정화처리시설 설치(2단계 증설), △비음항 여항구 확장 개발,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신설,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등의 예산반영을 요청했다.

농식품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국가적 식량안보와 농식품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 구축을 비롯, 공익적 가치가 큰 농축산물 미생물산업 생태계 구축과 관련 기업 집적화를 위한 농축산물 미생물산업 공유인프라 구축, 전통장류 지역마케팅 실증단지 구축 등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분야 사업으로는 무형

유산의 안정적 전승과 저변 확대를 위한 국립무형유산원 어린이 무형유산 전당 건립을 위한 설계비 반영과, 태권도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해외시장 공략을 위한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예산지원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

또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국회 예산심사가 진행될수록 기재부의 이해와 동의가 중요해지고 있어, 김중훈 경제부지사는 기획재정부 임기근 예산총괄심의관과 박금철 사회예산심의관을 만나 전북의 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을 요청하고 분야별 핵심사업들에 대한 필요성 설명과 함께 국회 단계 증액 요구 사업에 대한 동의를 거듭 요청했다.

전북도는 국회 상임위 심사와 예결위 심사가 동시에 긴박하게 진행됨에 따라 17일 김관영 지사가 국회를 다시 찾은 계획이며, 앞으로 남은 3주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주요사업 증액반영을 위해 정치권과의 공조를 더욱 탄탄히 하면서 전방위 총력 행동을 마지막까지 펼칠 계획이다. /김경수 기자

'도착한 수능 문제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5일 전주교육지원청에서 관계자들이 문제지와 답안지를 나르고 있다.

전주시, 대변혁 주도 내년 예산 2조4331억 편성

강한 경제·글로벌 관광도시 기반 강화 초점

올해보다 7.18% 증액 전주시의회 제출... 내달 심의 거쳐 확정

전주시가 광역도시 기반 조성과 강한 경제 구현 등 전주의 대변혁을 이끄는 데 초점을 맞춘 민선8기 첫 살림살이 예산을 짰다. 시는 2023년도 전주시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약 7.18%(1630억원) 증액된 2조 4,331억원을 편성해 전주시의회에 심의를 15일 요청했다.

본예산은 전주의 큰 꿈을 향한 전주 대변혁의 첫걸음을 내딛기 위한 것으로 광역도시 전주의 천년미래 준비, 강한 경제로 이루는 전주 대변혁,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글로벌 관광도시 기반 강화, 일상에서 누리는 맞춤형 복지 등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시는 전주의 천년미래를 위해 살기 좋은 광역도시 기반 조성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총 2,37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완주·전주 상생협력 활동 지원 1억원, 전주시정연구원 운영 17억원,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6억원, 기린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구축 15억원 등이 있다.

특히 시는 재난으로부터 회복력 강한 안전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통합재

난상황실 구축 17억5,000만원, 디지털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12억원 등의 예산도 책정했다. 또, 전지구적 과제인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자동차 등 구매지원 432억원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전주 대변혁을 견인할 미래산업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필요한 2,279억원의 경제분야 예산도 편성했다. 수소·탄소·드론산업 등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시는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 71억원,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10억원, 수소저장용기 시험·인증 플랫폼 구축 10억원 등을 반영했다. 여기에 신축융합플라자 건립 20억원,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 건립 104억5,000만원, 전주형일자리 사업 추진 1억원 등 기업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이 더해졌다.

또 시는 청년어학시험비 지원 및 전주기양반 취업지원 2억4,000만원, 전북출판민체용 전주거점 지원 2억 8,000만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50

억원, 전북형 청년 활력수당 26억 8,000만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48억원 등 청년 인재 육성과 소상공인·자영업자·농업인 지원을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시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글로벌 관광도시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 활력을 위한 문화공간 확충 예산도 세웠다. 주요사업에는 관광거점도시 육성 103억원, 동아시아문화도시 추진 22억 6,000만원, 소용관광 활성화 3억원,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 45억원, 무형유산 예술마를 조성 26억원 등이 있다.

이외에도 기초연금 21,999억원, 생계급여 1,175억원, 보육료 919억원, 영아수당 268억원, 장애인활동지원 505억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8,764억원 규모의 복지예산도 담았다.

2023년도 시 예산안은 12월 16일로 예정된 전주시의회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우범기 시장은 "2023년도 예산은 미래 광역도시 기반을 바탕으로 경제, 문화, 복지를 골고루 아우르고자 노력했다"며 "전주 대변혁의 힘찬 동력으로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중장기적 비전들을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제한 확대

도, 1년동안 계도 통해 제도 안착 유도

전북도는 오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을 앞두고 제도 안착을 위한 홍보·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제한 확대는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처음으로 확대되는 조치로, 편의점 등 중소형 매장

에서도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종이컵·빨대 등이 사용제한 품목에 추가되는 등 그 내용이 강화됐다.

전북도는 최근 코로나 영향 등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24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제한 확대 시책이 현장 부담을 줄이

면서도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참여형 계도와 함께 주민 밀착형 홍보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사용제한 품목으로 새롭게 포함된 비닐봉투, 빨대, 젓는막대 및 종이컵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하게 된다. 다만, 기존부터 적용되던 일회용품은 사용제한 조치가 유효하게 적용된다.

계도기간 후 적발시에는 해당 업체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경수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바쁘다는 핑계로 귀찮다는 이유로 살핀다는 오해로

밥과 멀어져 가는 요즘 하지만...

광고모델 김소형



밥은 유아 청소년기 **균형 있는 성장에 좋은 탄수화물입니다**

왜 밥이 중요할까요?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생길 수 있는 현상들]

1. 입안에 균이 번식하기 쉬워 구취가 생긴다.
2. 몸이 자주 붓게 될 수 있다.
3. 저혈당 증세로 피로감, 정신기능 저하 등이 생긴다.
4. 기운이 없을 수 있다.



농협 '쌀' 캐릭터 무럭이

